

“일괄 제시안 제출하라”

4일 8차 중앙교섭 … 사측, 금속 최임·타임오프 등 제시안 내지 않아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8차 중앙교섭에서 3차 제시안을 제출했으나, 이번에도 금속산업최저임금과 타임오프에 관한 제시안은 없었다.

금속노조가 6월 4일 경기도 광명역 회의실에서 8차 중앙교섭을 벌였다. 이번 교섭은 사용자 측이 주관했다.

사용자 측은 이번 3차 제시안을 통해 통일요구 <좋은 일자리 창출> 금속산별협약 제41조 신규채용 개정 요구안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 공동선언 요구>를 보완·수정해 제출했다.

<좋은 일자리 창출> 요구에 사용자 측은 지난 교섭에 이어 “회사와 조합은 생산 과정에서

탄소배출 저감과 사업장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신설이 필요한 경우 전환배치, 신규채용 등 필요한 조치에 적극 협력한다”라는 문구를 2항으로 추가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 공동선언> 요구와 관련해 사용자 측은 2차 제시안에서

“노사는 탈탄소와 기술혁신 과정에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한다” 라고 제출한 것을, 이번 3차 제시안에서 “노사는 탈탄소와 기술혁신 과정에서 비정규직을 포함한 양질의 일자리 유지·확대를 위해 인구구조 변화에 함께 대응한다” 라고 수정했다.

중앙교섭요구 <이주노동자 차별금지> 중에서 “회사는 취업규칙 제·개정, 근로계약서 체결, 임금명세서 발급 등의 경우에 한국어로 번역한 문서를 제공한다” 라는 노조 안을 두고, 사용자 측은 “회사는 근로계약서 체결, 임금명세서 발급 등의 경우에 해당 국가의 언어로 번역한 문서를 제공하되, 불가피한 경우 영어 문서로 제공한다” 라는 안을 제출했다.

사용자 측은 <금속산업최저임금>과 <근로시간면제제도 개선 노사공동 대정부 요구>, <이주노동자 차별금지> 나머지 항 등에 대한 제시안은 이번에도 내지 않았다. 사용자 측은 “사용자끼리 안을 모으기 쉽지 않다” 라는 이유를 들었다.

김상민 금속노조 정책실장은 사용자 측의 ‘좋은 일자리 창출’ 제시안에 관해 “여성 퇴직으로 감소한 인원은 여성으로 충원한다는 안이 없어 아쉽다” 라며 “사용자 측이 핵심요구를 비



껴가고 있다” 라고 꼬집었다. 이어 “협력한다고 표현하면 노조가 전환 배치를 수용하라는 느낌을 준다. 원안대로 수용해달라” 라고 촉구했다.

장창열 금속노조 위원장은 “매년 해오던 방식을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라면서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을 바라만 보지 말고 금속 노사가 선도하는 안을 내자” 라고 제안했다. 이어 “이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 라며 “중앙교섭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사용자 측에 차기 교섭 일관 제시안 제출을 촉구한다” 라고 힘주어 말했다.

엄상진 금속노조 사무처장은 사용자 측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 공동선언 요구> 제시안 문구가 “비정규직을 활성화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라며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다. 이 부분은 삭제해달라” 라고 요구했다.

박근형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 공동선언 문구는 의도가 있던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을 포함한 노동자 보호 대책을 마련한다는 취지를 살리려고 했던 것” 이라며 “다시 읽어보니,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고민해서 수정안을 만들겠다” 라고 답변했다.

박근형 회장은 “사용자들의 고민은 설문조사를 오래 했지만, 의견이 하나로 모이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라면서 “차기에 추가로 안을 준비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의견 드리겠다” 라고 말했다.

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는 9차 중앙교섭을 6월 11일 울산 현대제철지회에서 연다.